

“지역 성장엔진 中소 키운다”… 중견기업으로 도약 지원

이소영 중기부 장관 ‘현장 소통’

첫 방문지 충청권 1박2일 현장 행보
천안·대전·오송·세종·청주 순회
도약 참여社 간담회 기업으로 청취
내년 점프업 3단계 개편 지원 강화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 팔도에 있는 기업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는 충청도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오후엔 창업도시인 대전을 거쳐 이튿날인 16일에는 충북 오송시(글로벌 혁신특구)→세종시(K-뷰티기업)→청주시(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번 충청권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각 권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박 2일 현장속으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 처음 방문한 기업은 충남



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강소기업 엘케이랩에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천안에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엘케이랩을 비롯해 중기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1·2기 참여사인 케이엘큐브, 영풍전자, 새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하는 전략서포터인 삼성KPMG, BCG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점프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영풍전자 하홍 대표는 “점프업 프로그램 1기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한 청량음료 같은 정책’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다보니 해외 직접 수출을 위한 인력 채용이 만만치 않다. 아울러 국가마다 다른 제도, IP, 법률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에르코스 김태현 영업본부장은 “영유아 먹거리를 넘어 다양한 세대를 위한 상품 개발 과정에서 다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점프업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다만 고객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먹어도 될까’하는 우려가 있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지원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점프업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의 성장 스케일업을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 정부의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 외에 성장을 가로막는 부재나 애로 사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녹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도약 프로그램을 확대·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점프업100(매출 100억원 이상, 성장 기반 마련 3년) ▲점프업500(매출 500억원 이상, 신사업·신시장 진출 3년) ▲점프업1000(매출 1000억원 이상, 글로벌 확장 2년)의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스케일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R&D), 인공지능 전환(AI),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동반 상승 효과가 큰 ‘5대 핵심 분야’의 연계정책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엘케이랩과 케이엘큐브는 전략서포터와 함께 스케일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2026)에 반도체 분야 점프업 기업 6개사가 참가해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현황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충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얇아진 온열매트, 똑똑해진 카본매트 ‘인기’

에이스침대, 1mm 온열매트 선택
9월 판매량 전월 대비 2.5배 증가
귀뚜라미, AI 카본매트 시장 공략
자리 비우면 자동 절전모드 전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침대나 온돌위에 깔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OO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는 온열 제품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닥터 서플라이와 협업해 ‘닥터스 온열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숙면을 위한 체온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매트리스 본연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특히받은 탄소 섬유 기술을 통해 약 1mm 두께의 슬림한 온열매트를 구현했다. LCD 온도조절기로 온도를 99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는 1~12시간 사이에서 1시간 단위로 맞출 수 있다. 전용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온도와 타이머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KC 안전인증과 EMF 인증, EMC 인증



귀뚜라미 ‘2027년형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

을 비롯해 라돈 방산능 측정 시험과 에이스침대 침대공학연구소의 내구성 실험까지 완료했다. 에이스침대가 자사 온열매트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커진 9월 중순 이후 주문이 두드러지게 늘며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가 본격화됐다.

난방 전문기업인 귀뚜라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2027년형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로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스마트



에이스침대 ‘닥터스 온열매트’.

리모컨 중앙의 ‘AI 버튼’을 3초간 누르면 AI모드가 작동한다. AI모드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인 ‘AI 수면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잠잘 때 선호하는 적정 온도와 사용시간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수면패턴을 분석한다.

사용자가 잠자리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AI가 알아서 대응한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인 ‘AI 적정 온도 시스템’은 매트 위 사용자의 이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수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불필요한 난방을 줄이는 절전모드로 자동 전환한다. /김승호 기자

쌍용C&E, 서울 떠나 강원 동해로 본사 이전

12월부터 동해공장서 본사 업무 수행

쌍용C&E가 본사를 동해공장이 있는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했다. 영월공장은 환경사업 등을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강화해 동해·영월 복수거점 체계를 구축한다.

쌍용C&E는 지난 14일 서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소지를 ‘서울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새롭게 이전한 동해공장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쌍용C&E의 본사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와 영월을 중심으로 경영지원과 환경사업 기능을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생산·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대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 정책지원 힘 모은다

‘중소 기술마켓 협의회’ 구성 6차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북지역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북혁신협의회’ 구성을 위한 6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인 인증·등록한 도로·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중소기업 ▲한수원·한전기술·원자력환경공단이 인증·등록한 친환경·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수출·인력 등 정책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모비스, 中 상하이서 로보틱스 협력 모색

현지서 첫 모빌리티 데이 개최

현대모비스가 로보틱스 분야의 유망 협력사를 찾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중국 상하이로 기술 협력 무대를 넓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MM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열렸다. 현지 유망 기업과 완성차 업체,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로보틱스 부품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기업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에서 MMD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부터 북미 실리콘밸리에서 이어온 행사를 아시아로 확대해 로보틱스·반도체 등 신규 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투자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상하이는 제조 기반과 공급망 역량을

갖추고 양쯔강 델타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이 밀집해 있어 협력사 발굴에 유리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상하이시도 로봇산업 공급망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산업 육성계획에는 2027년까지 관련 선도기업 100개 이상을 집적하고, 관절 모듈과 스마트 센서 등 핵심부품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한 뒤 공동 또는 독자 기술 개발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업화하는 순서로 추진한다. 기존 모빌리티 분야에서 확보해온 반도체·소프트웨어 협력 관계를 로보틱스 등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략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과 실리콘밸리 투자거점인 모비스벤처스 등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한화시스템, 레이저 대공무기 성능 입증

육군 훈련서 드론 3대 모두 요격 성공

한화시스템이 드론 요격 성능을 연이어 입증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실전 배치된 ‘천광’과 함께 기동성과 출력을 높인 차량 탑재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대공방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4일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주관한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 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천광(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과 30kW급 ‘전투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의 드론 요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첨단 전투자산을 활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구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무기체계는 시연에 투입된 드론 3대를 모두 요격했다.

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품체로 참여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다.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으로, 별도의 탄약 보급 없이 전력을 공급해 운용할 수 있다.

함께 시연한 30kW급 레이저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가 사업관리를 맡고 한화시스템이 주관해 개발한 기동형 레이저 무기체계다.

/원관희 기자 wkh@